

ICC 체포영장 적시 푸틴 범죄 ‘현재 진행형’

〈국제형사재판소〉

병원·고아원서 조직적 명단 확보
“최소 수백명 우크라이 아동 납치”
구조·의료·입양이라 자부하기도
유엔, 아동 등 총 290만명 추산

작년 가을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러시아가 철수한다는 소문이 돌자 지역 병원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신생아들의 진단서를 조작하는 일이었다. 러시아군이 들이닥쳐 ‘아동 납치극’을 펼칠 것을 대비해 신생아들을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위중한 상태”로 꾸민 것이다.

헤르손 지역 전문의 올하 필라르스카는 이 같은 ‘위장술’을 통해 신생아 14명을 지켜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 영장에 적시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아동 불법 이주’는 현 시점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아동 납치는 우크라이나 아동을 러시아에 강제 데려간 뒤 위탁 가정에 맡기고, 궁극적으로 러시아 시민으로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주로 구조나 의료 처치, 입양 프로그램을 명목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헤르손의 지역 관리들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점령 직후 먼저 현지 친러 지도부와 협력해 병원과 고아원, 학교에 있는 아동들의 명단을 확보한다.

작년 10월 현지 보안 카메라에 러시아군이 한 고아원에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실제 해당 고아원에서 아동 50명이 납치됐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극장을 폭격한 지 1년이 되는 16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의 국립오페라극장 앞에서 주민들이 추모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에 따르면 당시 어린이를 포함해 러시아의 공습을 피해 극장에 약 1,000명의 민간인이 피신해있었고 폭격으로 최소 300명이 사망했다. 폭격 전 극장 옆 운동장에는 러시아어로 ‘어린이들’(дети)이라는 표식이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남부 전역에서 친러 지역 당국 주도로 ‘대피령’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강제 이주 계획의 선제 조치로 통한다.

러시아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으로 가는 길목이 모두 차단돼 또 다른 러시아 점령지나 러시아 본토로 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옮겨진 아이들은 현지 방송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행방을 알기가 힘들다.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까지 아동 70만명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인 290

만명이 러시아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그중 강제로 이주당한 경우가 어느 정도 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부모와 떨어져진 아동의 수도 또한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아동 2,000여명을 보호자 없이 러시아로 이주시켰다고 밝힌 바 있고, 우크라이나는 아동 1만6,000명이 이주당했다고 주장했다.

카립 칸 ICC 검사는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아동 이주 계획은 ‘인도적 절차’일 뿐이라며 이를 멈출 생각이 없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푸틴의 체포 영장에 함께 이름이 적힌 러시아 아동인권 담당 위원 마리아 리보바-벨로바도 대규모 이주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밝혀왔을 뿐 아니라, 영장 공개 직후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세계형사사법국 수장으로 일했던 스티븐 랩 전 대사는 “그들은 대놓고 범죄를 저질렀고 자부심을 드러내기까지 했다”고 NYT에 설명했다. /연합뉴스

나토 영공 지키는 영·독 러 전투기 등 4대 몰아내

영국과 독일이 에스토니아 영공에서 연합 공중순찰작전 중 러시아 전투기 등 항공기 4대를 몰아냈다고 독일 연방군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독일 공군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오늘 발트해 상공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다”면서 “긴급 대응 비상대기(QRA)팀은 4대의 러시아 항공기를 몰아냈다”고 밝혔다.

영국과 독일 전투기는 이날 러시아 단거리 제트여객기인 투폴레프 Tu-134를 몰아낸 데 이어 러시아 전투기 부대의 주력을 이루는 수호이 Su-27 전투기 2대와 안토노프 군용 항공기 AN-12를 몰아냈다.

이들은 공동순찰을 마치고, 에스토니아 에마리 공군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했다고 독일 공군은 전했다.

영국과 독일은 지난 15일에도 연합 공중순찰작전에 나서 여객기와 공중급유기 등을 몰아낸 바 있다. 두 항공기 모두 에스토니아 항공보안 당국과 교신 없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영공에 접근했다.

나토는 공중순찰작전을 통해 영공 보호 능력이 취약한 회원국을 다른 회원국 공군의 전투기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공군은 다음달 독일 공군으로부터 나토 ‘발트해 공중순찰작전’의 지휘권을 넘겨받기 위한 이양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우크라 전장서 중국산 탄약 사용했다”

교토통신, 미국 정부 확인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중국산 탄약이 사용된 것을 미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일본 교토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탄약의 재질 등을 분석해 제조국을 중국으로 특정해 관계국에 기밀 정보로 통보했다. 미 정부는 러시아 측이 중국산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정부 당국자는 탄약 종류를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여했는지, 아니면 중국제를 사용하는 제3국을 경유해 사용됐는지 등 입수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교토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투가 격화하면서 러시아군과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와그너 그룹의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라 중국제로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중국산 탄약 입수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항 조치를 취해 미중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립을 주장하며 무기 공여도 부인하고 있다.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벨라루스를 경유해 러시아 측으로 중국산 무기가 넘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에콰도르 규모 6.8 지진…최소 14명 숨져

약 400명 부상·주택 수십채 붕괴

에콰도르 서부 태평양 해안 지역에서 18일(현지시간) 강진이 일어나 에콰도르와 페루에서 최소 15명이 숨졌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에콰도르 항구도시 과야킬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깊이는 66km다.

에콰도르 당국은 옐로주에서 12명, 아수아주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14명이 숨졌고 38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최소 44채가 무너졌고 90여채가 훼손됐으며 학교 건물 50채와 보건소 30채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산사태로 인해 일부 도로를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마찰라 산타 로사 공항에도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다.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에콰도르는 대피령과 함께 시설 운영을 임시 중단했으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야킬 시내 다수 건물에 금이 가고 일부 벽이 무너졌으며 당국은 차량 터널 3곳을 폐쇄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SNS에 퍼지고 있는 한 영상에서는 방송 스튜디오가 흔들리자 놀란 출연자들이 화면 밖으로 황급히 벗어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찰은 손실 규모를 평가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통신과 전력이 마비돼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에콰도르 마찰라에서 강진 피해 건물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보리굴비정식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다미정’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씩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